

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

이해공유 노사관계 (Interest-Sharing Industrial Relations)

한국경영학회
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

이영면 (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)

노사관계



현대차 노사, 2017년 임금협상 상견례

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70310_0014756642&clD=13001&plD=13000

노조가 시정은 물론 논의할 수 없다고 재삼 강조한 자율시정 권고 조항은 현대차 노사의 단협 중 '제97조 우선 채용' 조항을 말한다. 이 조항은 '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'를 내용으로 한다. - 국제신문, 2017.3.9



현대중노조 "회사 쪼개져도 노조는 하나"...회사 '발끈'

<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3/17/0200000000AKR20170317141051057.HTML?input=1195m>



<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3/09/0200000000AKR20170309027500057.HTML?input=1195m>

이 과정에서 8명의 농성자가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자, 법원은 1인당 강제이행금 8천200만 원씩을 대학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.

이제,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?

1. 대립의 노사관계에서, 이해관계 공유의 노사관계로

- 1987년 노동자대투쟁
- 1997년 외환위기와 정리해고

- 2000년대 초반 산별노조
- 노사정위원회의 사실상 중단

- 청년고용절벽
- 4차산업혁명
- 자동화



푸드엠파이어 IFC물점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해 메뉴를 주문하는 모습

헤럴드경제, 2017.2.19, <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70217000770>



비주일다이브, 2016.3.3,

<http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3709298&memberNo=22846622&vType=VERTICAL>

롯데종합화학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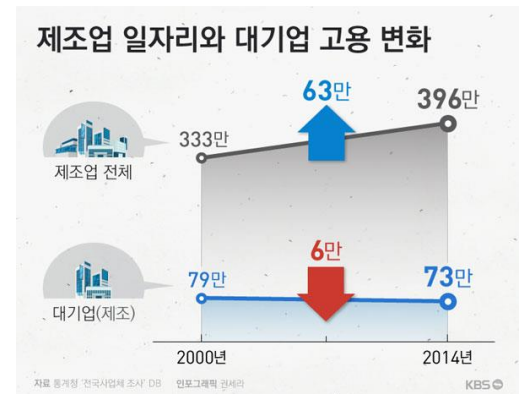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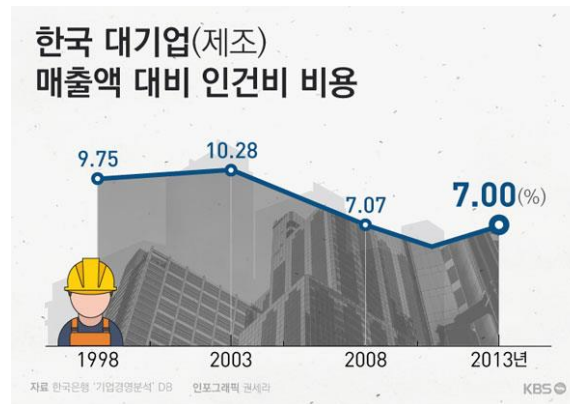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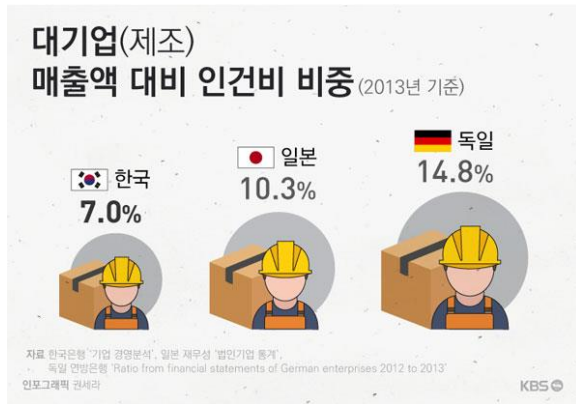


- 2016년 2월 삼성정밀화학은 주주총회에서 롯데그룹으로 넘어가는 구조조정 대상
- 삼성정밀화학은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원들이 떠나가는 성인희 사장에게 꽃다발을 선물
- 성사장은 임원으로만 구성했던 경영전략회의에 노조간부를 참여시켜 실질적인 투명경영을 시행하였고, 미래전략도 노사가 같이 짤
-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시기에 성사장은 노조위원장과 함께 해외세일즈를 다녔고, 롯데그룹으로 넘어가기로 결정된 뒤에는 노사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공동대응
- 한국경제TV, 2016.2.29; EBN, 2016.2.29

인건비 때문에 고용 못 한다?...

한·일·독 대기업 비교해보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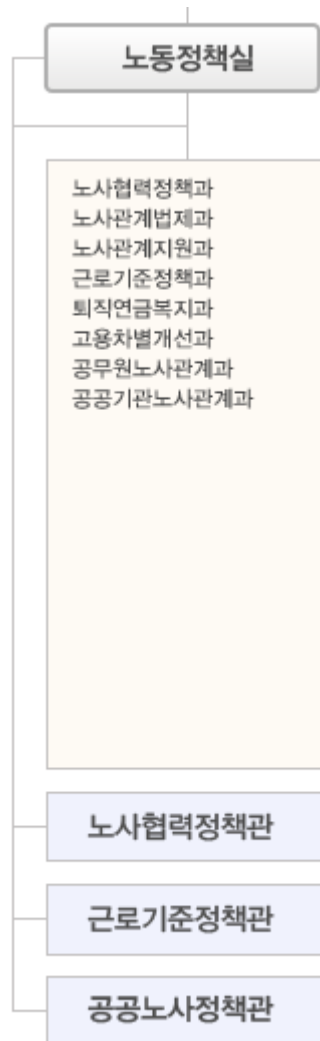
(KBS 2016.9.17)



연구자: 산업연구원 조덕희 선임연구위원

2. 정부의 일방적 주도에서 벗어나, 자발적인 노사관계로

대영노동부 노동정책실



노동개혁 분야의 핵심인 5대 법안은 끝내 좌초했다. 노동계 등의 반발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개정안,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입법 시도조차 이뤄지지 못했다. 근로기준법·고용보험법·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.

중앙일보, 2017.3.2 <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1329375>

노동개혁 5대 입법과제 주요 내용	
노동개혁 5대 개정 대상 법률	주요 내용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	비정규직 차별 금지
	노조에 차별 시정 신청권 부여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	기간제 사용기간 2년 연장 허용
	비정규직 차별 금지
근로기준법	노조에 차별 시정 신청권 부여
	통상임금 정의 명확화
고용보험법	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화
산업재해보상보험법	실업급여 인상
	출퇴근시 사고에 산재보험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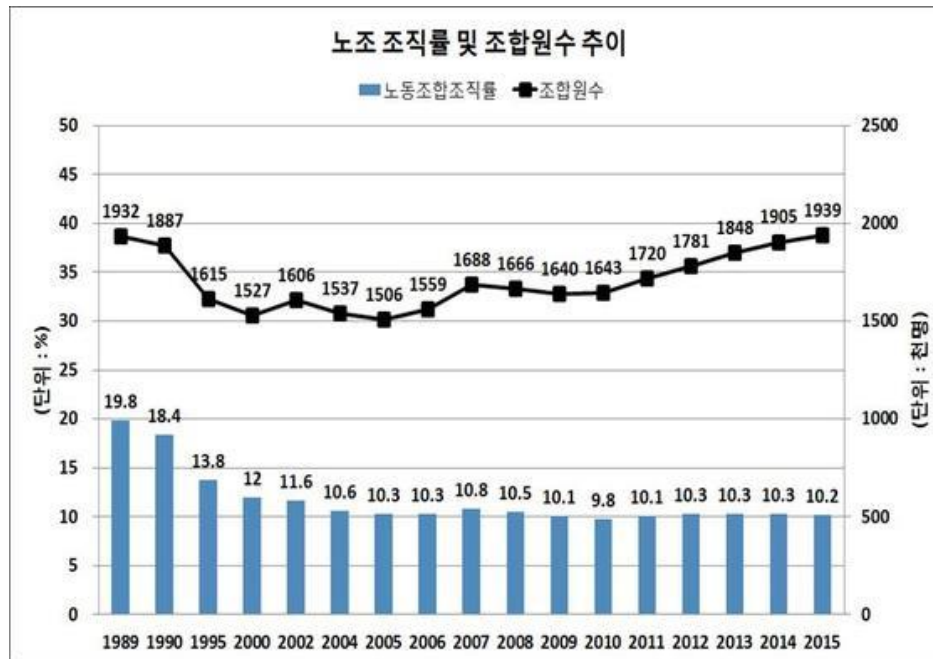
그래픽: 이승현 the300 디자이너

미국 러스트벨트에서 일자리 창출을 (미시간주, 오키오주, 위스콘신주 등)

- 이제 시작단계
- 미국내 노동조합들도 비판과 함께 협조할 의사 표명

- 공공부문의 확대?
 - 공무원 1인에 대한 평생 고용비용
 - 2017년 공무원 4만2천명, 공공기관 2만명 신규채용
 - 부산시 올해도 통 큰 채용, 3년 연속 1천명 이상 선발
(2010 357만, 2012년 354만, 2014년 352만, 2016년 354만)

1. 축소되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법으로 지원



- 노동조합조직률 10%
-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도입

2. 증가하는 비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목소리 대변

<표 2>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 여부

	있음	전체	비중(%)
임금협상 사업장수	194	962	20.17
명문화된 임금교섭권	48	962	4.99
명문화된 단체교섭권	37	962	3.85
명문화된 임금교섭권 및 단체교섭권	26	962	2.70



<http://www.dgenojo.or.kr/sub.php?Tid=11&Ctnum=12&Ctid=HM12&mod=view&no=6389>

<표 3>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시 결정방식

	사업장수	비중
합의	60	30.93
형식적 협의이나 합의	44	22.68
협의	61	31.44
설명 및 의견 청취	29	14.95
총계	194	100.0

<표 4>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협상 관련 정보

무노조	응답수	임금인상률
노측 최초임금인상요구를	59	5.29
사측 최초임금인상 제시률	194	4.73
최종 임금인상률	194	4.97
임금협상 기간	194	1.86(개월)
임금협상 횟수	194	1.9(회)

출처: 이영면, 나인강, 무노조 사업장의 유사 임금교섭활동, 미발표 논문

3. 지역, 업종 단위 노사정공협의체제의 활성화

- ✓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사민정협의회
- ✓ 조선업의 구조조정이나 금융분야의 인력감축
- ✓ 2017년 10월 호주의 4개 자동차회사 모두 폐쇄
 - ✓ 호주내 제조업 인력이 1970년 25%에서 8%로
- ✓ 중국의 폭스콘도 로봇작업화를 추진



<https://fr.news.yahoo.com/%EC%95%84%EC%9D%B4%ED%8F%B0-%EC%A0%9C%EC%A1%B0%EC%82%AC-%ED%8F%AD%EC%8A%A4%EC%BD%98-3%EB%85%84-%EB%82%B4-%EB%A1%9C%EB%B4%87-100%FB%A7%8C%EB%8C%80-%EB%8F%84%EC%9E%85-055618296.html>

<http://koreanherald.com.au/?p=2973>

1. 이중제도의 운영

➤ 이중임금제도

- ✓ 2009년 GM의 신입사원
임금삭감, 3년후 원상회복



<http://blog.4wheelonline.com/2014/12/16/uaw-fights-two-tier-wage-system-culture-detroit/>

2. 노사공동 미래위원회 설치



<http://www.ulsanpres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1063>

- 현대자동차와 전기자동차
- 삼성정밀화학의 비상대책위원회
- 일본의 고용친화적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사합의

3. 노동조합의 적극적 대응

- 독일 자동차3사 노조는 전기차 배터리 셀에 대한 투자 촉구
- 노동이사제



4. 원하청간의 임금및근로조건 격차 축소



- 협력업체와의 계약조건
- SK하이닉스 정규직 임금인상분 20% 양보 (2015)
-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선별 정규직화(2017.1)
- 삼성전자의 협력사 안전인센티브(2017.1)